

문제는 자본주의다



4월 3일 쌍용자동차에서 열린 금속노동자대회. MB가 역사를 되돌려서인지 노동자의 현수막도 복고풍으로 장단을 맞췄다. 이제 ㅍㄹ?! (4월 3日 雙用자동차에서 열린 금속노동자대회. MB가 역사를 되돌려서인지 노동자의 현수막도 복고풍으로 장단을 맞췄다. 이제 ㅍㄹ?)

때를 놓치면 죽는다

4~5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살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하자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발표됐다. 노동자 절반을 자르겠다고 한다. GM대우도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을 발표했다.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만도 위니아 정리 해고를 포함해 제조업 대부분 사업장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어떤가. 지난 12월 '공공부문 10% 인력감축' 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화되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는 5천여 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안에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연내에 인력감축을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6차 공공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 지난 해 발표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규모다. 이뿐이 아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미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단행한 곳은 350개에 이른다. 작년과 비교할 때 4.6배 수준이다.

4월 국회, MB악법의 부활

MBC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

사가 시작됐다. MBC경영진은 이명박정권의 으름장에 결국 굴복했고 바른말 잘 하던 뉴스 앵커를 하차 시켰다. YTN노동자들의 '공영방송 사수투쟁'은 위원장 구속을 비롯해 전면 탄압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4, 6월 국회를 앞둔 정권의 탄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 추가 개악안도 4월 국회에 상정됐다.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도 고개를 든다. 집시법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용산재개발조합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곳곳에서 '4월 내 용산 정리'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빠르게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이제 고삐를 죄고 있다. '고통전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쌍차노동자들은 전면투쟁을 예비하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은 제작을 거부하고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걸겠다고 한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들은 4월 16일부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용산범대위는 18일 대표단 농성을 시작으로 4말 5초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절 조직위원회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투쟁을 결의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절을 명망가들의 발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

들의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 선포식이 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4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투쟁 열기를 달구는 시기로 만들자. 이를 통해 5.1절 투쟁을 선포하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투쟁을 모아내자. 그리고 이를 '반이명박-반자본' 기치 하에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해나가자. 우리 스스로 '살기위한'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차례

- 쌍용차, 공세적 점거파업으로 돌파하자! 2쪽
-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인터뷰
- 유감 진보정당, 이제 후보단일화에서 눈길을 떼자! 3쪽
- 공공부문 '안녕' 하신가?
- 지금 세계 노동자 민중은 자본주의 심장을 압박하는 투쟁 중 4쪽
- 이규식씨 사진 세장 6쪽
- 삶과 투쟁이 살아있는 강령 만들기(2) 7쪽
- 사회주의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지양할까
-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8쪽

쌍용차, 공세적 점거파업으로 돌파하자!



4월 3일 쌍차집회. 중앙선-폴리스라인의 의미가 뭔가?

더 이상, 양보와 희생은 없어야 한다

4월 8일, 쌍용차 사측(법정관리인)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측은 전체 인력 7,130명 중 2,646명 정리해고와 400명 순환휴직 등,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르는 3,000여 명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는 희생안을 내놓았다. 이번 희

생안은 그동안 쌍용차 사측이 강요해온 연속적인 노동자 죽이기 - 정규직 전환 배치와 비정규직 휴직, 비정규직 해고 - 의 결정판이다.

상하이차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것을 통해 쌍용차를 희생하려는 사측은 쌍용차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매각을 단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의 희생을 말하기 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부 소각해야 하지만 상하이차의 지분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차 자본 매각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외환방어 금융과 기업살리기에는 총 39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상하

이차의 책임을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희생시켜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의 회생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공장점거파업투쟁과 전노동자 연대투쟁만이 살 길이다

6월 초부터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며, 그 이전엔 명예퇴직 압박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없는 쌍용차는 청산밖에 길이 없다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간의 분열을 강요하고, 노조의 공세적인 투쟁을 사전에 제압할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쌍용차 투쟁의 교훈은 무엇인가? 회사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작은 양보를 하면 이는 이후 더 큰 자본의 양보공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쌍용차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6월 초 대량 정리해고 전에 공장점거파업을 통

해 강도높고 선제적인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즉 쌍용차 노동자가 '죽기살기' 각오로 전면적 파업투쟁에 나섰을 때만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을 판가름했듯이, 쌍용차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국가)간 투쟁의 이후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의 공장점거파업투쟁과 경기지역 노동자의 지역총파업, 나아가 금속노동자의 연대총파업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속화되는 공황국면 아래서 09년 노동과 자본(정부) 간의 첫 전장이 쌍용차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동운동은 공세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혜경

인터뷰

“차라리 다 자르겠다고 해라” 쌍용자동차 사측 희생안 거부, 전면투쟁 준비하겠다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인터뷰



4월 8일 경영진의 정상화방안이 발표됐다. 판단이 어떤지?

한마디로 파산계획서 같다. 쌍용자동차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양심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 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다. 쌍용차가 문을 닫으면 혜택을 보는 것은 상하이 차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공장을 가동할 고민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적으로도 상하이차 경영진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갈취해 간 것들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상황은 어떤가?

노조는 예상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다수 조합원들은 많이

놀랐다. 발표되기 전까지는 노사공동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등 노조집행부의 '투쟁하자' 기조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수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정도일 줄 몰랐다' 분위기다. 특히 생산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50%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향후 투쟁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안지가 있으면 좋겠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선 대의원대회에서 확대간부 결의를 모았다. 확대간부가 긴장감을 갖고 투쟁을 조직하는 게 일차 승부처라고 본다. 또 하나는 투쟁수위와 시점에 대한 문제다. 현장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는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위임한 상태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4월 13일부터 파업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집행부는 내

부 동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서 강력한 투쟁을 할 계획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 향후 집행부는 현장조직력 강화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법원 결정도 남아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이 예상되는데?

경영진의 계획을 보면 법원 결정도 뻔하다. 차라리 다 자르겠다고 해라. 정부도 내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숨막히게 한다. 강도 높은 안이라는게 뭔가. 노동자 다 자르고 설비, 공장, 부지 남겨서 자본이 먹기 좋게 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지역공투본이 구성되고 있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강한 의지를 보이고 현장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실천이 담보되면 금속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을 비롯해 민주노총이 합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투쟁하는 것이다. 지난 4월 3일 금속노동자대회 보면서 '금속노동자는 그래도 저력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시작하고 금속노조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투쟁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으로도 공황기에 돌입했는데 당장 들고 일어설 수는 없다고 해도 정말 살기 힘들면 국민들도 결단 내리지 않겠다. 이 속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우리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

취재 및 정리 : 선지현

유감 진보정당, 이제 후보단일화에서 눈길을 떼자!

노무현이 말했다. “하도 민망한 일이 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노무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또는 조승수와 김창현에게서 듣고 싶다. 정말이지 노동자 민중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판국에 이른바 진보정당 또는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이 펼치고 있는 정치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보고 싶다. 어느 누군가 기필코 당선되어 어떤 활동과 희망을 보여주려고 그토록 끈질기게 후보단일화에 매달렸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나는 알고 싶다. 진보정당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의회 다수당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묻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의회 다수당이 될 수 있는가를. 나는 궁금하다. 의회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돼서 당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라든가, “의원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돌려주겠다. 당신들의 프로페셔널은 부르주아 정당의 그것에 비하면 그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 당신들이 말하는 프로페셔널의 기준과 잣대가 결국 제도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정치활동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어찌 사회주의 정치활동에서 나오는 활력과 기쁨을 그깟 의원 활동에 비하겠는가.

후보단일화는 이제 저들에게 맡기자.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기대나 실망도 하지 말자. 그럴 필요와 이유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거기에 눈길을 줘야 할 만큼 정세와 세상이 한가하지 않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치활동 전 과정을 통해 두 당과 두 인사는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와 명분에 따랐다. 이 점에서 그들은 이제 거추장한 아마추어 복장을 훌훌 벗어 던졌다. 부르

주아 정당과 제도 정치를 향한 프로의 날개 짓을 맘껏 펼쳤다. 그렇게 가도록 이제 놓아 주자.

분리될 것이 분리되었을 뿐이며, 분리할 것을 분리할 뿐이다. 사실 너무 늦었다. 있어야 할 것, 왔어야 할 것이 지체되는 바람에, 바로 그 공백 때문에 그나마 지난 10년 간 저들의 존재감이 보였을 뿐이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 민중이 저들에게 기대는 것이 남아 있고, 아직은 그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릴 만큼 입

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일 때는 미처 몰랐다. 진보신당이 분리될 때만 해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 진면목이 드러났다. 노무현에게 실망하는 ‘민주세력’ (?)의 심정보다 두 당에 느끼는 노동자 민중의 비애는 더욱 쓰라리다.

고민택



4월 4일 후보단일화 대표 회담장을 나서는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 사진출처 울산노동뉴스

공공부문 ‘안녕’ 하신가?

- 민영화에 맞선 투쟁과 조직의 혁신없이 안녕은 없다

공공부문에 실용노조 탄생?

최근 공공부문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가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국제공항공사노조 탈퇴 결정, 지하철 노조들의 연이은 탈퇴 움직임, 새로운 노총 건설 등이 그것이다.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실용노조운동의 서막’을 예상하기도 한다. 자칭 실용노조들은 경제위기와 같은 시기에는 노사상생만이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고통분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새로운 것 없는 노사상생, 이를 부르짖는 노조들은 경제위기를 앞세운 MB정권의 구조조정 계획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사실 뻔하다. 비정규직 해고를 눈감으면서,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임금삭감을 앞장서 실천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모두 훼손하면서 살아남은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무너지고 있다, 심각하다

저들의 주장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딱 한가지다. 바로 ‘민주노총으로 갔을 때는 기대가 많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한국노총을 버리고 민주노총을 선택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했던 현장노동자들의 바람과 기대가 민주노총 운동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일부 사업장에서는 선진화방안을 놓고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지침을 수용하면서 ‘현재 고용이라도 유지하자’는 기조가 존재한다. 어용적 작태를 보고도 ‘조직논리’를 앞세워 눈감고 타협한다. MB정권의 ‘공공 철밥통’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한 채 ‘여론’을 핑계 대며 쉽게 손을 들어버린다. 결국 민주노총 탈퇴는 바로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결과다. 조직의 ‘정체성(계급성)’을 지켜내지 못한 민주노조운동의 단면이다.

자본의 위기 전기는

공공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하는 공공노조들은 공황기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 공세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권과 함께 탄압하는 주역이 될지도 모른다. 정권은 이 조건을 놓치지 않고 거침없이 공격해올 것이다. 이미 6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은 공공부문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4-6차 방안은

2만 2천명에 달하는 인력감축방안이 제출돼 있다. 각 공공기관은 올해 초부터 이사회를 열어 정원감축을 결의하고 있고 심지어 2012년 순차적 계획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과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조들이 ‘현원 유지’라는 정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공공부문은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기다릴 것도 없다. 시급하게 공공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 래야만 조직도, 정체성도 지킬 수 있다.

선지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주요 내용

- 1-3차 : 38개 공기업 민영화, 38개 → 17개로 통폐합 등 인력감축 위한 조직 개편 단행
- 4차 : 69개 기관 인력감축 계획 발표(19,383명 감축)
- 5차 : 132개 공기업 출자기관 구조조정 발표. 매각(113개), 청산 및 통폐합(19개) 등 공기업 팔기 결정(4조 6천억 매각 수입)
- 6차 : 4차 대상 제외한 60개 기관 인력감축 계획 발표(2,981명 감축)
- * 전 318개 공공기관 10% 인력감축, 임금동결 및 복지예산 축소
- * 서울시, 서울지하철 등 지방공기업 연내 인력감축 완료 계획발표 (2,968명 감축)

지금 세계 노동자민중은

전 지구적 공황에 맞선 노동자-민중투쟁의 확산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전 지구적 공황 아래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도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의 불황국면이 장기공황의 초기국면인 만큼, 아직은 전면적인 투쟁이 폭발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시기의 폭발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한 투쟁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성난 시위대의 포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대 1명이 사망하면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때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 거림을 받았던 반세계화운동의 투쟁력이 올해 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살아나면서, 전 지구적 경제위기의 주범들에 대한 국제적 연대투쟁이 본격적인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97-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등 자본주의의 주변부의 일시적 위기국면과 달리,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를 완성한 런던의 시티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금융자본주의 중심축이 위기의 진원지인 만큼, 지난 30여 년 간 '대안은 없다'는 논리로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폭정이 파산했음을 선고했다. 이 파산선고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전반적 투쟁의 양상과 향후 전망

현 시기에 공황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저항과 투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은 공황의 초기단계인 만큼, 투쟁이 체제의 중심부를 타격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반년동안 터져 나온 저항과 투쟁의 파고는 다가올 투쟁의 미래를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먼저 예기치 못하게 터져 나오는 폭동의 물결 앞에서 아이슬란드와 라트비아의 우파 정부가 몰락했다. 그리스의 폭동과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그루지야 등 동유럽의 폭동은 정부를 위기상태로 몰아넣었다. 비록 정권교체로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저항의 파고는 이미 유럽의 주변부에서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하게 했다.

한편 제국의 중심부에서도 조직노동 중심의 대응과 아래로부터의 자연발생적 전투적 투쟁이 서서히 결합되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의 전통이 강하고 노동조합이 우파정권에 맞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들의 통일전선과 사회운동은 총파업을 통해서 우파정권에 압박을 가했다. 아일랜드의 노총 역시 이 대오에 합류했다. 반면 노총이 무력화된 나라들에서는 아래로부터 전투적 비공인파업과 점거파업이 주요한 투쟁 형태로 등장했다. 작년 12월 미국 시카고의 리퍼블릭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 영국 플랜트 노동자들의 비공인파업, 최근 스코틀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등이 그 사례이며, 이런 형태의 파업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G20 정상회담: 공허한 해결책과 대중의 분노



4월 1일 런던도심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의 제안으로 모인 G20 정상회담은 미국의 정권교체와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일부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회복과 새 국제금융질서 구축을 위한 6개항 합의사항(▲신뢰, 성장, 고용 회복 ▲대출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 ▲금융규제 강화 ▲현 위기대처 및 향후 위기방지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보호주의 배격과 세계무역 증진 ▲지속가능한 회복의 공고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 등)은 미봉적 해결책에 불과했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희생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하려는 필사의 노력에 불과했다.

위기의 주범들이 위기의 해법을 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맞서, 회담개최지인 영국과 서유럽, 세계 각국에서 G20을 규탄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런던 중심부를 포위한 5만 명의 시위대는 분노한 대중의 힘을 보여주었고, 영국경찰의 무차별폭력으로 시위대 1명이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G20 투쟁은 지난 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전 세계 활동가들의 투쟁결의에 따른 것으로, 2005년 이후 동력상실과 내부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던 세계사회포럼과 반세계화운동이 전 지구적 경제공황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의 국제연대투쟁으로 자본주의와의 근본적 단절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G20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4월 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NATO반대투쟁도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라크에서도 미군의 점령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벌어졌다. 이와 같이 변화된 정세 하에서, 현재 벌어지는 단위 사업장이나 지역, 전국적 수준의 투쟁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결된 공동투쟁과 연대투쟁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위기에 처한 자본과 정권, 국제금융기구들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4월 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돌발적인 폭동의 확산 -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2008년 12월 그리스

자본의 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로 전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그리스를 강타한 민중봉기는 알렉시시란 15세 소년의 폭력살인으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700유로 세대'의 저항이었다. 거의 2개월 가까이 계속된 가두의 전투는 기존 여야 정치권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폭동은 내전과 군부독재 이후에 민주화와 결합된 신자유주의가 청년세대의 미래를 말살하는 사회구조가 가져온 불가피한 현상이다. 비록 지금은 불씨가 꺼져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점화될 것이다.

2008년 9월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3개 주요은행이 연이어 파산하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하에서 아이슬란드의 30만 민중들은 일자리와 집, 자동차까지 잃을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정권퇴진투쟁에 나섰다.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아이슬란드판 촛불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마침내 1월말 보수파 정권이 퇴진했다. 4월 25일 새로운 총선이 열릴 예정이다.



2008년 12월 19일 그리스

붕괴되는 정권들 - 아이슬란드에서 동유럽으로



1월 24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정권붕괴의 와중에,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주변부에 통합된 동유럽에서도 연이은 민중들의 자발적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불가리아와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최근 그루지야까지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민중들이 정권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사회주의의 해체로 변변한 운동세력조차 없는 황량한 정치지형에서 자본주의와 정권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대중적 저항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근 몇 달간 헝가리, 라트비아, 체코에서 정권들이 연이어 붕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취약한 동유럽 자본주의의 파산은 유럽연합 편입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드러냈으며, 구소련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전락한 지 4반세기만에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이다.

자본주의 심장을 압박하는 투쟁 중

현재의 공황국면에 대한 투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랑스와 프랑스령 식민지의 폭발적 투쟁이다. 프랑스의 대처를 자처하는 사르코지 정권의 공세에 2년간 다소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면서 2차례의 전국파업으로 대응하였고, 이 투쟁은 프랑스령 식민지인 카리브해의 소국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에서 전국적 봉기사태로 폭발했고, 결국 2개월에 걸친 총파업 끝에 정권의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위기시 대중투쟁의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처럼 현 시기 경제공황에 맞선 투쟁은 폭발적 형태의 자연발생적 투쟁(폭동과 비공인 점거파업)과 조직된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교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특히 모순이 응축된 곳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자본의 중심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가오는 파국과 불가피한 대결

이번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최종적 파산이다. 이번 G20 회담의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제국주의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입정책으로 선회한 가운데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으로 회귀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하는 데 천문학적 액수의 민중의 돈을 퍼붓지만, 빈곤과 실업, 불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들에게 별로 약속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30년이 가져온 파국은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즈주의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다수의 노동자-민중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체제임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민중은 일국적 수준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수준에서 반자본주의투쟁, 사회주의건설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불균등하다. 최근 6개월간 다양한 형태의 투쟁과 저항이 폭발하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아직은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총파업도 우파정권을 압박하는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대안으로서 국유화와 사회주의도 아직은

구호수준이다.

그러나 심화되는 위기가 노동자의 일차리와 생존을 더욱 위협함에 따라 투쟁의 폭과 수위는 예상을 넘어 확장될 것이며, 일국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대결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의 야망을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위한 투쟁 역시 불가피하다.

원영수



조직노동자들의 저항 -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의 총파업



3월 19일 프랑스 마르세이유, 두번째 전국파업


전반적으로 경제공황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은 취약하고, 대부분 방어적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 우파정권에 맞서 작년 12월 12일 좌파노총(CGIL)의 주도하에 150만이 참가한 총파업을 벌였고 4월 5일에는 20만이 로마에서 다시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에서도 1월 29일과 3월 19일 사르코지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파업에 각각 250만 명과 300만 명이 참가했으며, 전국의 300여개 도시에서 반정권 시위가 벌어졌다. 아일랜드 역시 노총 주도로 2월 21일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경제위기 하에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우파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일부 노총들이 총파업과 전국적 가두시위로 정권을 압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시아 - 세계경제 기관차의 이면

아시아의 경우 다른 지역처럼 폭발적 양상의 투쟁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 자본주의의 팽창을 주도했던 중국과 인디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 위기의 한파 속에서 실업과 생존권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해고반대, 체임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200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5-7만 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역최대의 경제 강국인 일본에서도 이른바 '파견촌'이 전국의 관심사가 되었다. 파견법 개악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파견노동자들이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한 '파견촌'이 도쿄 중심부의 하네코 공원에 만들어져, 위기에 처한 일본 노동자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아시아 전역을 감도는 경제공황의 여파는 단지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태국과 파키스탄 등에서는 정치적 위기로 전화되고 있다. 태국 2006년 9월 쿠데타와 파키스탄의 무사라프 군부정권의 퇴진을 계기로 촉발된 민주화는 경제공황 국면과 맞물려 대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파견촌

개별현장의 저항 -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작년 12월 월스트리트의 비명 속에서 시카고의 창문제조업체인 리퍼블릭사에서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이 공장점거를 결정했다. 1950년대 미국노총의 반공주의 마냥사냥으로 노총에서 추방된 전기노조(UE) 소속의 조합원들이 전격적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유례없는 '불법투쟁'이었음에도 지역사회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쟁취했다. 1930년대 산별노조를 추동한 자동차산업의 플린트 농성파업, 1970년대 전투적 비공인파업의 전투성이 되살아난 중요한 사례로서 저항의 무궁지대인 미국노동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도 린지 플랜트 노동자들이 비공인 파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비정규직 이주민 저임금 노동자들만을 고용하는 건설사업주에 맞서 플랜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외면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최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중소기업장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위협에 맞서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와 같은 비공인파업과 점거투쟁의 양상은 197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 현 시기 경제위기의 강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노총이나 산별노조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갖지 못한 채 정권의 공세로 무력화된 상황에서, 기층에서 누적된 대중들의 불만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 전국적 투쟁과 식민지로의 확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랑스의 대처 사르코지 정권은 "68혁명의 관에 못을 박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지만, 채 2년도 넘기지 못한 채 전민중적 저항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있다. 1월 29일과 3월 19일 2차례에 걸친 전국파업에 3백만 이상의 노동자, 학생, 실업자 등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가두에 진출하여 사르코지 정권에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투쟁은 프랑스 본토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식민지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에서도 강력한 투쟁이 폭발해서 준혁명적 상황에 이르렀다. 인구 45만의 과들루프와 인구 30만의 마르티니크에서, 석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폭등과 빈곤 및 생존권 악화사태를 계기로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과들루프 44일 총파업(1.20~3.4)과 마르티니크의 37일 총파업(2.5~3.14)은 프랑스 본토와의 연대투쟁을 매개로 현지 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이후 프랑스 중앙정부로부터 200유로 임금인상 등 중요한 양보를 쟁취했다. 이 식민지령의 전국총파업은 식민경제구조의 청산과 정치적 독립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경제공황 시 폭발적 투쟁과 승리의 전형적 사례이며, 이후 벌어질 투쟁의 귀감이다.



1월 29일 프랑스

이규식씨 사진 세상



25년 지난 사진



20년 지난 사진



지금 사진

25년 지난 사진

자세히 보면 많은 것들을 추리할 수 있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이 사진을 보고 소녀들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자기 어릴 때의 것이라 추리했다. 2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저 개는 사진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표정인데 반해 저 뒤에 초점 나간 소년은 사진찍히고 싶은 표정이라 추리했다. 뒤에 있는 소년, 이규식씨 15살 때 처음으로 공부를 가르치던 삼육재활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다. 25년이 더 지났으니 사진찍히기 싫었던 개는 생존해 있을 확률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규식씨가 사랑하는 동생들로 잘 지내고 있다. 규식씨가 동생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진 못했지만, 동생들 이야기하는 표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추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년 지난 사진

규식씨가 19살 때 들어간 시설에서 2년 지나다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목사님을 붙들고 여행가겠다고 설득과 회유, 협박 끝에 20만원을 받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수동휠체어를 타고 혼자

서, 젊을 때니 미친들 어쩌랴. 그래도 다 행인 건 제주도가는 배에서 만난 친절하신분의 도움으로 큰 고생은 안 했다고 한다. 지금도 약간의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기면 여자친구와 제주도에 가고 싶단다. 당장엔 극장가서 영화보며 데이트하기도 힘들다. 4월이라서.

지금 사진

매년 4월이 되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집중적으로 활동한다. 투쟁단은 지금 복지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다. 4월 11일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 농성장을 지켰고, 다음날 아침 규식씨가 지킨 천막을 배경으로 한 장 찍었다. 지금 타고 있는 전동스쿠터를 보면 때가 꼬질꼬질하지만, 장애인권 박물관을 만들어 영구보관하고 싶은 참 대단한 물건이다.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지만 아랫부분의 주요차체 외에 모두 개조됐다. 아는 분이 개조를 해서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100만원 쯤 들었을 거라고 한다. 워낙에 약하게 만들어져서 투쟁안해도 쉽게 부서지게 나온 것이었지만, 규식씨와 함께 지내며 철판을 두르고 유

사시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물건이 됐다. 그리고 걸로 드러나지 않은 깜짝 놀랄 편리한 장치가 몇개 숨어있는데, 그것이 비밀장치라 여기서 누설하진 못한다. 알고 싶으면 어떻게 친해져 보시던지. 친해질 틈하나 알려주자면, 규식씨는 앞으로 비올 때를 대비해 덮개를 장착하려고 연구 중이다.

는 동안 적잖게 수다를 떨었지만 들은 이야기가 많지 않다. 보통 1주일 정도 같이 지내면 규식씨 이야기가 귀에 제대로 들어온다니까, 이들의 시간으로 수다를 떨려고 했던 건 그런 시건방도 없다. 어쨌든 들으려 걱정하고 들어도 1주일 걸린다는데, 들을 의지가 없는 것들을 상대로 뭔가를 외치니 그것들 귀에 규식씨 말이 들리려면 그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짐작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동생들 사진 찍을 때 멀리 뒤에서 초점나간 소년은 얼마뒤 혼자 제주도 여행가서 자기 운명의 주인공으로서 독사진을 찍었고, 지금은 다른 장애인들의 호민관이 되었다. 규식씨는 사회주의에 대해, 사회주의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의 호민관을 자처하는 분들은 여성, 생애, 소수자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자 하는 목소리를 카테고리화하지만 말고 제발 귀담아 들으세요.

규식씨는 목이 뻐뻐한 사람이 아닌데 목디스크로 고생중이다.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하나? 아, 뒤골!

찾기



규식씨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상근활동가다. 주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기처럼 시설로부터 독립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규식씨의 삶과 활동으로 수다떨려고 만나서 22시간 동안 함께 했다. 밥먹고, 술마시고, 자고, 이동하고, 밥먹고, 낮잠 자고, 샤워하고, 이동하

듣든지 말든지

4월 20일은?

4월 20일,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투쟁으로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낸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폭로하고 투쟁한다. 아래로부터 현장 투쟁을 통해 각 지역 진보적 장애인 운동을 강화한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이명박 정권의 민중생존권 탄압을 막아낸다.

-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09년 장애인생존권 9대 정책 요구안**
1. 탈시설-주거권을 전면 보장하라!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3.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4.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5.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라!
 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9.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를 개선하라!

삶과 투쟁이 살아있는 강령 만들기(2)

“강령 하나하나의 구절에는 수십만 선동가의 연설이나 논문이 요약되어 있다”는 말처럼, 강령은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급투쟁과 그 계급투쟁에 대한 이론적 분석·전망 속에서 나와야 하며, 그 계급투쟁을 강화하고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이자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강령 토론과 논쟁이 학술적이거나 현학적인 논의에 빠지지 않고, 개인적인 경쟁으로 타락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은 물론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 투쟁의 방향에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강령 토론과 논쟁의 과정은 당 건설 과정에 새로운 활력과 추동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카핑 스탈린주의’ vs ‘카핑 트로츠키주의’

구도를 넘어야

우리의 강령 건설은 1990년대 초반 현실 사회주의 붕괴의 충격, 최근 공황의 수렁에 빠진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수십 년간에 걸친 계급투쟁의 성과와 한계·오류를 사회주의적 관점과 전망에서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이론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은 여전히 취약하거나 논쟁이 진행 중이다. 또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이 혼란스럽고, 사회주의자 공동의 용어나 개념으로 재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강령 건설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구체적인 현실분석을 이론적으로도 추동해 나가는 계기와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우리는 강령 건설 과정에서 20c 사회주의를 둘러싼 ‘스탈린주의 vs 트로츠키주의’라는 논쟁 구도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카핑 스탈린주의’ vs ‘카핑 트로츠키주의’라는 구도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선택만을 강요받는 구도를 깨고, ‘21c 사회주의’의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을 모색할 것이다.

강령적 내용을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담보해야

강령이 작성되고 나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호주머니 강령’이나 우리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증명사진’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강령이 되려면 “강령은 현실의 투쟁과제와 맞물려 끊임없이 등장해야” 한다. ‘증명사진’은 그가 누구인지는 증명해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에 나서게 하거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령은 목적을 단순히 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령은 건설되어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사회주의자들이 강령의 실천적 주체로 서고, 또 일상의 조직 운영에서 계급투쟁의 실천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쟁점을 끊임없이 강령적 수준에서 토론하고 분석하고 재해석해 나갈 수 있는 조직구조와 조직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강령 하나하나의 구절에는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와 열망을 집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강령은 ‘21c 사회주의’를 위한, 살아있는 강령이 될 것이다.

박성인

전국공동토론회 참관기

사회주의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지양할까

지난 3월6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사회주의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고민과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되면서 애초 가졌던 그런 기대는 알 수 없는 갑갑함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것은 자신만의 어떤 경계를 설치하고 그것을 옹호하고자 하는 완고한 경향이 지배하는 토론 분위기 때문이었다.

정당건설의 과정에서 제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토론회인 만큼 그것은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고 설득, 관철시키기 위한 것을 넘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한

다. 하지만 토론회 분위기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토론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선거유세의 공간이었다고나 할까. 이런 토론회라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거기에는 그 적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나름의 어떤 정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답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의지의 과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의 과잉에 의해 자신들의 이론, 실천이 지니고 있는 여백과 한계,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유보와 주저, 그리고 그것을 채울 내용과 방법에 관한 진지한 논의 등은 온전히 숨길 수 없었다. 정당을 포함하여 그 무엇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는 과연 무엇인가.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작 ‘정치 빈곤’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단지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환경·생태 문제, 젠더의 문제, 평화의 문제 등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그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여긴다면 어떤 이론적, 실천적인 변화가 필요한가를 물었지만, 그에 대해 답은 쓰레기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단상,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에 지배되고 있는 기존 주류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유지할 때만이, 그러한 문제들 또한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통상적 연술의 형태로 되돌아왔다. 그것도 유보 없이, 단호하게 말이다. 주로 사노련 활동가들에 의한 답변이

었지만, ‘어떤 정답’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또 ‘정답’을 바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에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론, 실천의 수준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직면한 질문 고민의 흔적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 아쉬웠다.

밀린 원고 때문에 먼저 토론장을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이런 자문자답을 하였다.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어떻게 대상화하며 자신을 지양할 수 있을까. 자신을 이론 다음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환경 및 생태, 젠더, 평화 문제 등을 자기화한 ‘사회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발상, 태도의 준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광일 | 성공회대 연구교수, 정치학



자본의 지휘아래 국가가 저지른 학살, 용산참사가 4월 29일로 100일을 맞이합니다. 용산은 용산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MB식 경쟁교육을 거부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저들만의 국회에서는 온통 반민중적/반민주적 악법들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에서 5월로 가는 길목에 철거민들이, 노동자들이, 장애인들이,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반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불은 지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아야 합니다. 탄압을 뚫고 돌파해야 합니다.

5.1절까지 총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런 힘으로 5월 2일 촛불 1년 10만 범국민대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작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명박정부 퇴진까지 촛불을 밝힙시다.

4월에서 5월로 용산에서 전국으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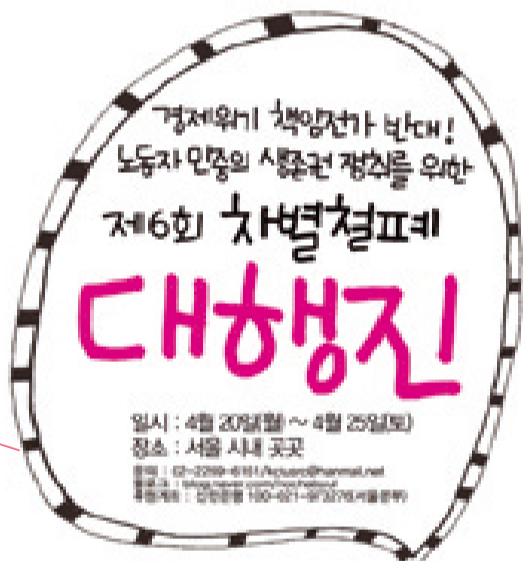


실천단 용산시대를 모집합니다.
4월말 범국민추모주간을 대중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 및 용산투쟁 승리를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실천단 용산시대를 꾸립니다.
활동기간 : 4월 18일~5월 2일(전체 및 부분 참여 가능)
문의 : 02) 795-1444

18 (토) 2차 범국민고발인대회
실천단 용산시대 활동시작



19
20 (월) 장애인차별철폐대회
차별철폐대행진(용산참사 현장에서 출발)



22 (수) 용산참사범대위 대표단 농성

용산참사범대위 대표단 농성
범대위 대표단 및 유가족이 함께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지지방문 및 실천단에 함께해주세요.
기간 : 4월 22일~5월 2일
문의 : 02) 3667-2855

23 (목) 추모음악회 라이브에이드 희망



24 (금) 추모음악회 라이브에이드 희망

25 (토) 용산참사 추모대회

23일 이상은 흐른 윈디시티 오!브라더스
24일 브로콜리너마저 킹스턴루디스카
갤럭시익스프레스 블랙홀
티켓 판매가 2만원
장소 : 추계예술대학교 추계콘서트홀(아현역2번)
문의 : 02) 749-0883

28 (화) 용산살인진압 100일 추모주간 선포식 / 천주교 추모행사

29 (수) 용산살인진압 100일 / 불교 100일재

4월 30 (목) 비정규직 철폐의날 / 개신교 추모행사

집중하는 날, 세부사항 논의 중

5월 1 (금) 5.1절

2 (토) 촛불 1주년 10만 범국민대회